SUSTINVEST 20th Anniversary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6. 11. 17. (화)**	**보도일시**	**배 포 즉 시**
담당부서	리서치본부	**담당자**	고은해 본부장(02-6310-9318) 박윤진 선임연구원(02-6310-9324)
배포부서	ESG솔루션팀	**언론담당**	송채우 연구원(02-6310-9305)

담합 제재 기업 10곳 중 6곳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갖췄다

– 담합 제재 기업의 CP 도입률 58.2%, 같은 업종 미제재 기업(28.9%)의 2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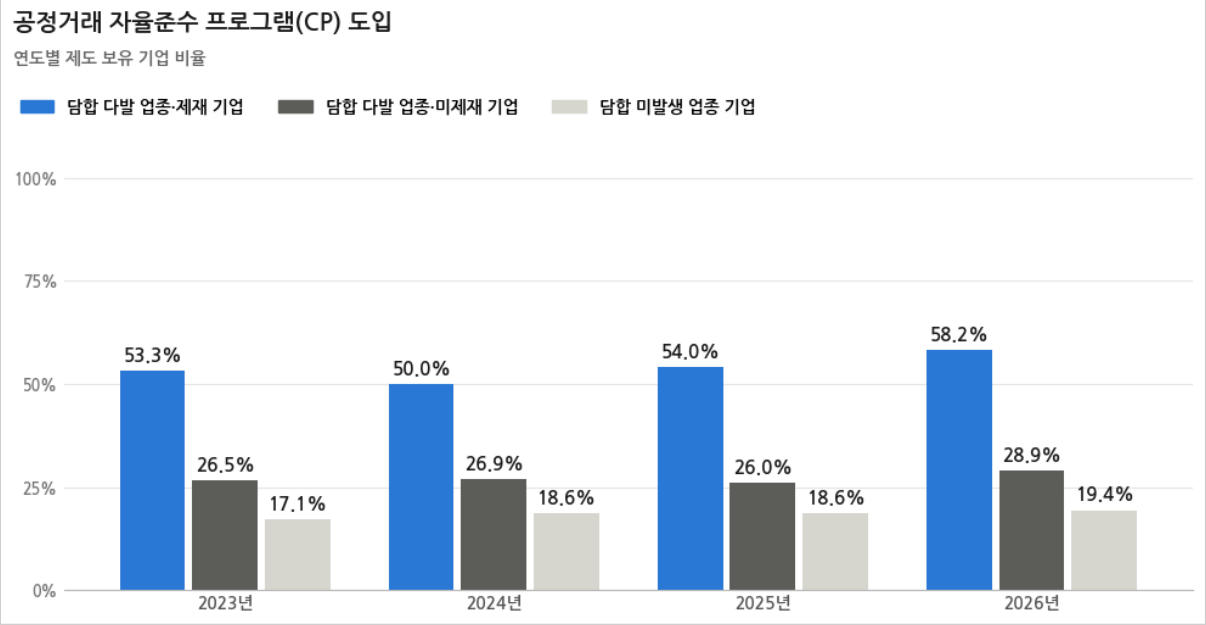
– 준법·부패방지 인증 보유율은 2.9배... "제도 보유만으로 담합 위험 못 가려"

– ESG 베스트기업 100곳 발표, HK이노엔, 한국항공우주산업, LG유플러스 등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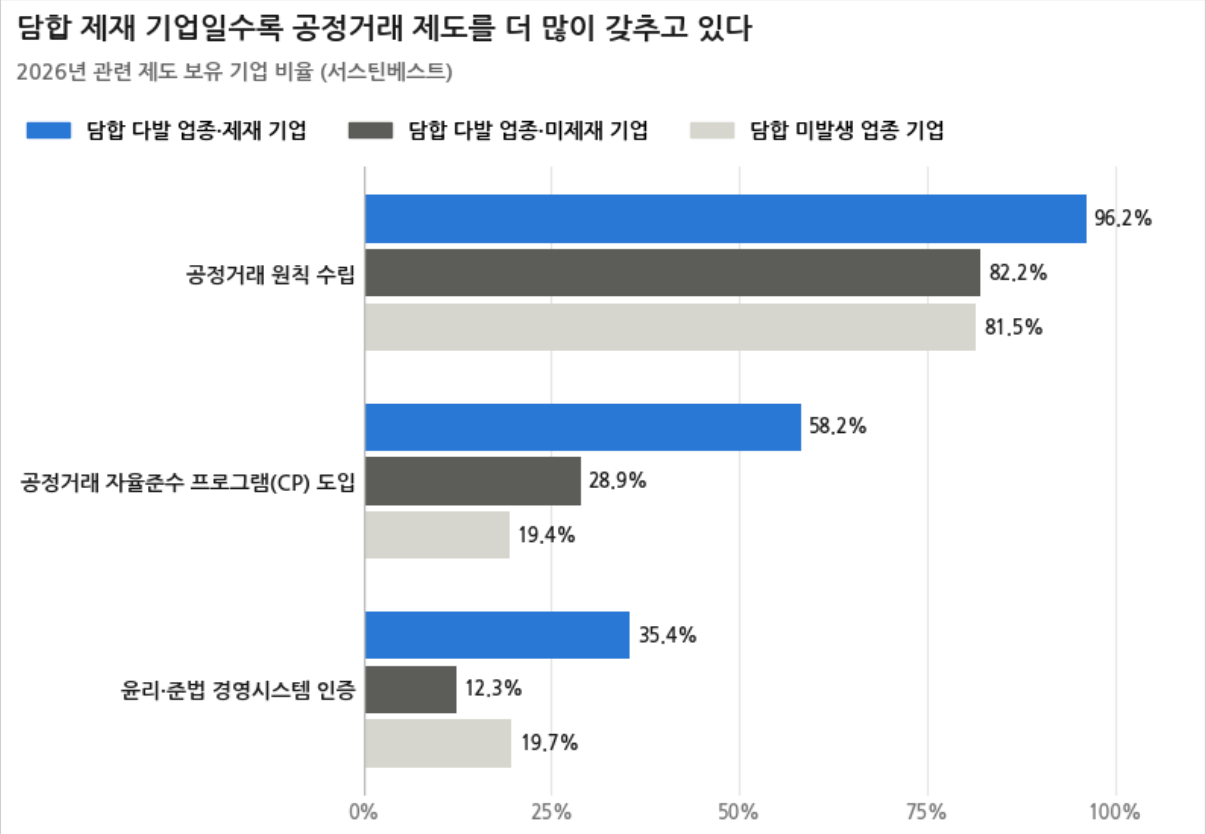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는 17일 2026년 하반기 ESG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국내 1,328개 기업이다. 서스틴베스트는 2023~2026년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을 세 그룹으로 나눠 공정거래 관리체계 보유 현황을 비교했다.

최근 4년간 담합 제재는 94개 기업에서 125건 집계됐다. 서스틴베스트는 37개 업종 가운데 건수 상위 12개를 담합 다발 업종으로 분류했다. 건설, 음식료·담배, 내구소비재·의류, 통신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이 업종에 속한 332개 기업 중 담합 제재 이력이 있는 기업은 79개이다.

2026년 하반기 기준 제재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률은 58.2%였다. 같은 업종 미제재 기업(28.9%)의 2배, 담합 미제재 업종 기업(19.4%)의 3배이다. 이 순서는 2023년부터 4년간 바뀌지 않았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격차가 가장 큰 지표는 준법·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이다. 제재 기업의 보유율은 35.4%로 미제재 기업(12.3%)의 2.9배였다. 제재 기업의 보유율은 2025년 24.5%에서 1년 새 10.9%p 올랐다. 공정거래 원칙은 제재 기업의 96.2%가 수립했다. 미제재 기업(82.2%)보다 14.0%p 높다. 두 그룹의 격차는 4년 내내 12%p를 넘었다.



이번 결과는 담합 제재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시점에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국고채 입찰 담합으로 15개 금융사에 과징금 1조6,266억 원을 부과했다.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 과징금 총액은 1조7,000억이 넘어, 종전 연간 최고치(2017년 1조3,308억 원)를 반년 만에 넘었다.

CP는 2001년 도입됐다. 기업이 자율준수 관리자를 두고 임직원 교육과 내부 감시 체계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신청 기업의 운영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우수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과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반복 담합 기업에 CP 도입·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회장은 "담합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오히려 CP 도입과 윤리경영 인증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제도의 보유와 실제 준법경영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CP 도입 자체를 준법경영의 성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기업은 실질적인 위반 예방과 통제 성과로 제도의 효과를 입증해야 하며, 정부도 CP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감경은 운영 실효성이 검증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스틴베스트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상장사 100개사를 '2026년 하반기 ESG Best Companies 100'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붙임1] 그림 참고)

'ESG Best Companies' 선정은 자산 규모에 따라 ▲2조원 이상 상장사 50곳 ▲5천억~2조원 미만 30곳 ▲5천억원 미만 20곳으로 나뉘어 이뤄졌으며, 2조원 이상 상위 기업으로는 HK이노엔(195940), 한국항공우주산업(047810), LG유플러스(032640),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으로는 콜마홀딩스(024720), 에이피알(278470), 그리고 5천억원 미만 기업에서는 MNC솔루션(484870), 포스코엠텍(009520)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서스틴베스트는 이번 'ESG Best Companies' 발표를 통해, 기업 경영 전반에서 ESG 모범 사례를 조명하고자 했다. 이번 발표는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현장에서의 책임 있는 경영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서스틴베스트 ESG평가 개요

서스틴베스트는 2006년 국내 최초로 상장기업 ESG 평가를 도입하여 현재는 약 1,300개의 상장・비상장기업에 대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리 수준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 결과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ESG 투자에 활용되고 있다. ESG 분석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와 위험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친화적이고 지배구조가 건전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서스틴베스트의 기업 ESG 평가는 사업보고서 공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시점을 고려하여 시의성 있는 평가를 제공하고자 1년에 2번 실시된다. 상반기에는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공시에 맞춰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환경, 사회를 보강하여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서스틴베스트는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평가 대상 기업들을 연결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5천억원 미만의 세 그룹으로 구분해 규모별로 차등화된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발표하고 있다.

[붙임1] 2026년 하반기 ESG Best Companies



[붙임2] 2026년 하반기 기업 ESG 평가결과

2026년 하반기
기업 ESG 평가결과

2026.11

목차

Ⅰ. 서스틴베스트 평가 체계 ····· 02

Ⅱ. 2026년 ESG 평가 결과 ····· 04

Ⅲ. Negative Screening ····· 06

Ⅳ. 과소배당기업 ····· 08

V. ESG Best Company ····· 09

SUSTINVEST

I. 서스틴베스트 평가 체계

1. **평가모형:** 당사의 평가 모형인 ESGValue™ 은 상부와 하부로 이어지는 위계적 구조(hierarchy)로 평가 모형의 최상위체계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영역은 Category(평가항목), KPI(평가지표), Data Point(세부지표) 순의 단계별 하부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2. **규모별 등급과 전체 등급:** 규모별 등급은 ESG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갖춘 대규모 기업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한계를 보완하고 ESG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가려내기 위해 도입한 등급 체계이다.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평가 대상 기업들을 2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5천억원 미만으로 구분해 규모별로 차등화된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이에 준해 등급을 부여한다. 규모별 등급과 함께 제공되는 전체 등급은 규모 구분 없이 절대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3. **가중치:** 다수의 하부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근거로 가중치를 결정하고, 각 단계별 지표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해 상위지표의 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또한, 지표 간 상대적 중요성을 근거로 가중치를 결정하되, 그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로 산업별 특성과 각 지표와 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Materiality)를 고려한다.

4. **평가제외:** 해당 기업의 산업적 특성 및 규모 상의 제약으로 인해 특정 지표에 대한 평가가 어렵거나 불필요할 수 있다. 이에 당사에서는 각 기업이 속한 산업과 기업의 규모를 고려해 평가가 어렵거나 무의미한 지표는 평가제외로 분류해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5. **컨트로버시 이슈:** 평가기간 내 ESG이슈와 관련된 논란이 되는 사안 즉

컨트러버셜한 이슈(Controversial Issue)가 발생한 경우 그 사안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과 유사한 사안의 재발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컨트로버시 레벨을 부여받은 경우, ESG 영역별 점수에서 각각 레벨에 맞는 점수가 차감된다.

6. **대규모 기업집단 평가:** 대규모 기업집단 평가를 통해 총수일가가 소수지분으로 기업집단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주주가치 훼손 리스크의 정도를 점수화하여 지배구조(G) 영역의 최종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7. **평가등급:** ESG 평가는 AA, A, BB, B, C, D, E의 7 등급으로 이루어진다.

[표 1] 등급별 의미

등급	의미	설명
AA	ESG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수준이 탁월한 기업	ESG 경영에 대한 리더십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핵심 비즈니스 전략에 내재화한 우수 사례를 보여줌
A	ESG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수준이 매우 우수한 기업	ESG 경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지속가능성 이슈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보여줌
BB	ESG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수준이 우수한 기업	ESG 경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효과적인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B	ESG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수준이 양호한 기업	기본적인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ESG 경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있음
C	ESG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수준이 보통인 기업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일부 수립하였으나, 포괄적인 지속가능 전략이 부족하여 ESG 경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D	ESG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수준이 취약한 기업	ESG 리스크 관리 체계가 미흡하며, 포괄적 지속가능 전략의 부재로 모니터링이 필요함
E	ESG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수준이 매우 취약한 기업	최소한의 ESG 리스크 관리 체계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ESG 공시 정보가 부족하여 낮은 ESG 성과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

I. 2026년 ESG 평가 결과

1. **평가 대상 기업:** 당사는 2026년 하반기 ESG 평가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743개, 코스닥 상장 기업 340개, 비상장 기업 245개, 총 1,328개의 기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평가 대상 기업 중 연결 기준으로 총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은 458개, 2조원 미만인 기업은 870개이다.

2. **평가 성과 분석:** 이번 평가를 포함한 최근 3개 평가시기의 등급 분포와 자산 규모별 등급 분포는 아래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평가시기별 등급 분포 (기업 수)

평가시기/등급	AA	A	BB	B	C	D	E	Total
2025 하반기	154	258	365	240	215	46	21	1,299
	11.9%	19.9%	28.1%	18.5%	16.6%	3.5%	1.6%	100%
2026 상반기	152	272	356	237	225	39	24	1,305
	11.7%	20.8%	27.3%	18.2%	17.2%	3.0%	1.8%	100%
2026 하반기	160	280	362	234	224	42	26	1,328
	12.0%	21.1%	27.3%	17.6%	16.9%	3.2%	2.0%	100%

출처: 서스틴베스트

[표 3] 자산 규모별 등급 분포 (기업 수)

규모	연도/등급	AA	A	BB	B	C	D	E	Total
2조 이상	2025 하반기	64	78	104	81	79	21	12	439
		14.6%	17.8%	23.7%	18.5%	18.0%	4.8%	2.7%	100%
	2026 상반기	69	96	111	76	72	19	9	452
		15.3%	21.2%	24.6%	16.8%	15.9%	4.2%	2.0%	100%
	2026 하반기	67	94	113	78	75	23	8	458
		14.6%	20.5%	24.7%	17.0%	16.4%	5.0%	1.7%	100%
2조 미만	2025 하반기	90	180	261	159	136	25	9	860
		10.5%	20.9%	30.3%	18.5%	15.8%	2.9%	1.0%	100%
	2026 상반기	83	176	245	161	153	20	15	853
		9.7%	20.6%	28.7%	18.9%	17.9%	2.3%	1.7%	100%
	2026 하반기	93	186	249	156	149	19	18	870
		10.7%	21.4%	28.6%	17.9%	17.1%	2.2%	2.1%	100%

출처: 서스틴베스트

I. Negative Screening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사회적 기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무기(방위), 주류, 도박, 담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죄악주(sin stock)를 포트폴리오나 펀드에서 배제하는 투자전략이다. 서스틴베스트는 ESG 평가시 상기 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평가대상종목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지만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측면 의사결정을 돕고자 참고자료로 무기, 주류, 도박, 담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투자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22년 상반기부터는 국내외 석탄 채굴, 석탄 발전, 석탄 사용 집단 에너지 사업 영위 기업 등 석탄 관련 사업 영위 기업을 네거티브 스크리닝 목록에 추가하였다.

무기 관련 기업은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를 포함한다. 스크리닝 기업 중 풍산홀딩스, 풍산은 집속탄(cluster munition)을 생산/판매한다. 집속탄은 민간인 사상자를 내는 무기로 100개국 이상이 생산과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용금지 조약을 체결하였다. 상기 기업들은 이로 인해 상당수 해외 기금 운용 기관들의 투자배제목록(exclusion list)에 포함 되어있다.

아래 표 4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목록을 제시하였다. 1) 무기 관련 기업 중 집속탄, 대인지뢰를 판매하는 기업 2) 주류, 담배, 도박 관련 기업 중 연결 혹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당 사업이 전체 매출액의 40%이상 차지하는 기업

[표 4] 2026년 서스틴베스트 네거티브 스크리닝 기업

종목명	스크리닝 분류	사업 내용
풍산홀딩스	Firearms & Weapons	집속탄 (Cluster weapons)
풍산	Firearms & Weapons	집속탄 (Cluster weapons)
엘아이지	Firearms & Weapons	집속탄 (Cluster weapons)

종목명	스크리닝 분류	사업 내용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Firearms & Weapons	집속탄 (Cluster weapons)
SNT 홀딩스	Firearms & Weapons	대인지뢰 (Anti-personnel mines)
SNT 다이내믹스	Firearms & Weapons	대인지뢰 (Anti-personnel mines)
KT&G	Tobacco	담배 (궐련, 차세대담배, 잎담배)
MH 에탄올	Alcohol	주류제조용 주정
보해양조	Alcohol	주류 (소주, 과실주)
무학	Alcohol	주류 (소주, 리큐르, 과실주)
하이트진로	Alcohol	주류 (맥주, 소주, 막걸리)
롯데관광개발	Gaming	카지노 (도박)
GKL	Gaming	카지노 (도박)
파라다이스	Gaming	카지노 (도박)
강원랜드	Gaming	카지노 (도박)

I. 과소배당기업

당사는 기업의 배당 지급 여력과 실제 배당 지급 수준을 비교하여 과소배당에 해당되는 기업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당사는 기업의 부채비율, 미처분이익잉여금, 당좌자산, 최근 3년간의 배당성향 및 배당 수익률 등을 고려해 동종 산업 내의 평균적인 배당 수준과 비교, 과소 배당 여부를 판단하였다. 표 5에서는 과소배당 기업 중 연결자산규모 2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의 상장기업을 제시하였다.

[표 5] 2026년 하반기 서스틴베스트 과소배당 기업

종목명	섹터명	연결자산규모
SK 바이오사이언스	제약, 생명공학 및 생명과학	2 조이상
미래에셋생명	보험	2 조이상
한화생명	보험	2 조이상
크래프톤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2 조이상
실리콘투	자유소비재 유통 및 소매	5 천억이상
한국정보통신	금융 서비스	5 천억이상
휴젤	제약, 생명공학 및 생명과학	5 천억이상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5 천억이상
명신산업	자동차 및 부품	5 천억이상
네오위즈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5 천억이상
네오위즈홀딩스	일반지주	5 천억이상
매일홀딩스	일반지주	5 천억이상

출처: 서스틴베스트

Ⅴ. ESG Best Company

[표 6] ESG Best Company 2026 하반기

순위	기업명	순위	기업명
연결 재무제표 기준 2조원 이상 기업			
1	HK 이노엔	26	오리온홀딩스
2	한국항공우주산업	27	현대엘리베이터
3	LG 유플러스	28	BGF 리테일
4	NAVER	29	동아제약
5	현대백화점	30	포스코퓨처엠
6	DB 하이텍	31	코스맥스
7	현대지에프홀딩스	32	금호석유화학
8	SK 텔레콤	33	현대로템
9	지역난방공사	34	신한금융지주
10	NC	35	신세계
11	두산밥캣	36	GC 녹십자
12	SK 증권	37	BNK 금융지주
13	풀무원	38	LG 전자
14	오리온	39	NH 투자증권
15	코웨이	40	CJCGV
16	아모레퍼시픽홀딩스	41	엘앤에프
17	제주은행	42	카카오뱅크
18	BGF	43	현대오토에버
19	삼성전기	44	롯데칠성음료
20	LG 이노텍	45	LG 생활건강
21	대한항공	46	iM 금융지주
22	KB 금융	47	포스코인터내셔널
23	KCC 글라스	48	GS 건설
24	DB 손해보험	49	HMM
25	아모레퍼시픽	50	한진칼

※노란색 셀은 2026 하반기 Top100 신규 편입 종목

출처: 서스틴베스트

순위	기업명	순위	기업명
연결 재무제표 기준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			
1	콜마홀딩스	16	빙그레
2	에이피알	17	하나투어
3	코스메카코리아	18	이수페타시스
4	신세계인터내셔날	19	에스티팜
5	동아 ST	20	일동홀딩스
6	한섬	21	엠씨넥스
7	한독	22	보령
8	콜마비앤에이치	23	한세실업
9	광주신세계	24	컴투스
10	광동제약	25	신성이엔지
11	HL 디앤아이한라	26	애경케미칼
12	LG 헬로비전	27	하림
13	대덕전자	28	일동제약
14	현대그린푸드	29	현대리바트
15	롯데하이마트	30	AP 시스템
연결 재무제표 기준 5 천억원 미만 기업			
1	엠앤씨솔루션	11	평화산업
2	포스코엠텍	12	안랩
3	삼진제약	13	고영
4	동일고무벨트	14	가온그룹
5	대양전기공업	15	삼호개발
6	한미글로벌	16	테이팩스
7	테스	17	에코앤드림
8	비츠로셀	18	PI 첨단소재
9	경보제약	19	부광약품
10	모나리자	20	삼양바이오팜

※노란색 셀은 2026 하반기 Top100 신규 편입 종목

출처: 서스틴베스트